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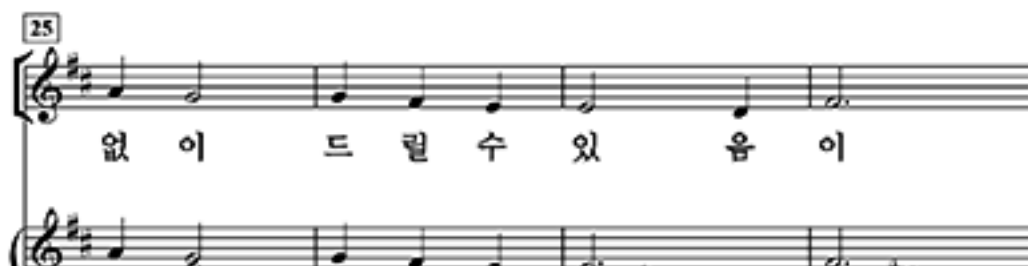
해설: "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군을 가져다가 예수께 발에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."(요 12:3)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,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.

그러하기에 이마이마한 가치의 향유를 전혀 아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.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! 예수님은 기쁘게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"은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"(마 26:13) 라고 말씀하십니다.

(음악시작) 지금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? 나는 그것조차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? 이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.

고백하듯 ♩ = ca. 100
(with sincere confession)

요한복음 12장 1절 - 3절
Words & Music by 지수경



이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.

Solo *p*

아 - -

나 의 큰 기쁨 됩 니 다

mf

나 의 마 음 향 유 에

답 아 주 님 께 전 하

네 - - 주를 향 한 사 랑 전

합 니 다 기쁘게 받아주 소

서 - - 주 - 님 -

SOPRANO *mf*

ALTO

TENOR *mf*

BASS

주 님 께 드 리 네

이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.

53

께 주-님-께 겸손함으
드 리 네 지 금

57

로 드-리-네 가장
이 시 간 주 님 께, 드 리 네

61

귀-한 것으로 - 모두
드 리 네 주께 모 두

65

드-리-네

이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.

69

73

77

81

이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.

86

함으로 - 주 - 께

감사함으로 주님께

90

주 - 님 - 께

드 리 네 드 리 네

94

께 내정성 다 해

지금 이 시간 주님께

98

드-리-네 겸손함으로

드 리 네 드 리 네 사랑 하는

이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.

www.vitnara.com

뒷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.